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Seongnam Culture

성남문화

2019. 12 하반기 vol. 31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

작가소개

죽전 김 원 술

- 2017, 2018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 초청작가
- 제3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한국화) 심사위원장
- 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 회장역임(현)고문
- 성남예술대상
-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분과이사

1. 표지
2. 목차
3. 신년사
4. 하반기 사업
   - 제28회 성남사랑 글짓기
   - 제19회 송산백일장
   - 개천절 기념식 및 단군제
   -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 제4회 둔촌문화제 / 제14회 둔촌중국백일장
   - 제22회 강정일당 상 시상식
   - 제14회 남한산성권 순국선열 추모제
9. 제24회 학술회의 / 성남문화연구 26호 발간
10. 제24기 문화학교 수강생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2019 성남문화의집 수강생 전시, 발표회
11. 대회수상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 경기복지재단 "제4회 9988톡톡쇼 경연대회"
12. 공모사업
    - 경기복지재단 "어르신 즐김터-종이로 엮는 황혼(지승공예, 종이인형)"
    - 경기문화재단 "문화공유! 예술파동"
    - 한국문화원연합회 "생활문화동아리 세묶음 공연"
14. 문화원 이모저모
18. 하반기 향토유적답사
19. 2020 주요행사일정
20. 사진으로 보는 하반기 행사

발행일 2019. 12. 31 발행인 김대진 편집인 김정진 김연정 김희중 심기환 발행처 성남문화원
주소 133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 전화 031)756-1082, 1028 팩스 031)756-1056
홈페이지 www.seongnamculture.or.kr

풍요와 희망, 기회의 경자년

김 대 진
성남문화원장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다 이루어져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날을 맞이하여 성남문화원은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성남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나아가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봉행(奉行)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명산대천(名山大川)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국태민안을 축원합니다.

올해는 경자년 쥐띠의 해입니다. 쥐띠 해는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의 해입니다. 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본능이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가야 지방에서 출토된 집 모양 토기에는 지붕 위에서 고양이가 곡식 창고로 올라오는 쥐 두 마리를 노려보는 모습이 표현 돼 있어서 쥐는 오래전부터 곡식 창고의 주인공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과 다산, 풍요, 부지런함, 지혜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쥐띠가 열두 동물 중 첫 번째이고, 하루의 시작도 子時에서 시작됩니다. 한문으로도 쥐 서(鼠)가 아닌 "싹이 트기 시작한다." 는 뜻을 가진 아들子 글자를 쓴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우리 모두 저축과 절약에 힘써서 재물의 풍요와 마음의 풍성함이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강정일당 추모〉

『제28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관내 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인 200여명 참가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고하는 기회를 주고자, 『제28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를 7월 13일(토) 오전10시 30분부터 성남시청 분수대광장에서 개최했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강정일당의 고귀한 인품을 기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성남에 자부심을 심어 주어 우리 고장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희망했다.

성남시립국악단의 가야금 2중창 '아리랑'을 시작으로 글짓기 대회가 시작됐으며, 성남캘리그라피협회에서는 '좋은 글, 가훈 써주기'를 했다.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는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여류문사 강정일당을 추모하는 행사이며, <강정일당 이야기>, <내 고장 성남>, <탄천>, <중앙공원>, <미세먼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등의 다채로운 주제로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산문, 운문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되었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초등(산문) 장원 야탑초등학교 김미진의 '탄천', 초등(운문) 장원 이매초등학교 권준형의 '탄천', 중등(산문) 장원 창성중학교 황윤진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중등(운문) 장원 샛별중학교 신채은의 '중앙공원', 고등(산문) 장원 성보경영고등학교 이채은의 '강정일당 이야기', 고등(운문) 장원 운중고등학교 김태겸의 '탄천', 일반부 장원 이영주의 '맛있는 공기'외 64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날이 갈수록 창의성이 높고, 개성 있는 글들이 많아졌다." "비유가 정확하고 굳은 의지가 담긴 문장도 있었다."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

송산 조견 선생 추모 『제19회 송산백일장』

성남문화원이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의기충절을 남긴 송산 조견(1351~1425년)선생을 추모하는 '제19회 송산백일장'을 열었다.

9월 12일 오전 10시30분 성남시청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한 백일장은 <송산 할아버지>, <내 고장 성남>, <어머니>,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초·중학생, 일반부(산문·운문)로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송산 조견선생의 충절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 지정된 조견 선생(본관 평양)은 애초 이름이 '윤'이었는데 고려가 망하자 '견'으로 고쳤다. 자는 종견, 호는 송산, 시호는 평간공이다.

시상식은 10월 30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이루어졌으며, 초등(운문) 으뜸 단남초등학교 김준서의 '송산', 초등(산문) 으뜸 단남초등학교 김미령의 '버팀목이 되는 송산할아버지께', 중등(운문) 으뜸 낙원중학교 김민지의 '어머니', 중등(산문) 으뜸 송림중학교 김주함의 '나의 꿈', 및 일반부 특별상 5인 외 49명을 시상했다.

단기 4352년 개천절 기념식
단군제·도당굿 문화축제(제25회) 개최

성남문화원은 1부 단기 4352년 개천절 기념식, 2부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축제(제25회)를 10월 3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 은행동 산성공원 놀이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천절 기념식에는 경기소리사랑회 '부채춤'. 성남국학원 '나라사랑 국학기공'의 식전 공연에 이어 개회선언,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개천절노래 합창 및 소리친구회의 '경기민요'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2부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축제는 단군성조연합회(회장 이경식) 주관으로 성남시립국악단 '타악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성남국학원의 '나라사랑 국학기공', 나채옥의 '상산거리', 이향우 경기민요단의 '재담소리와 비나리', 김태환, 김덕현, 양선희, 이상희, 김정훈의 '군웅거리', 송옥순외 '작두거리'가 펼쳐지면서 단군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얼을 되새기고 국가의 발전 및 성남시의 번영과 각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올해로 4352번째를 맞는 개천절은 한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화합을 다짐하고, 동시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서의 본래 인간다움을 회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인성회복을 통해 국태민안과 평화통일 성남시민의 화합축제"라고 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개최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회장 방영기) 주관, 성남시가 후원하는 성남시 향토민속놀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공연이 9월10일 화요일 야탑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사라져가는 성남의 전통문화를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문화계승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우리 성남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날 공연은 '길놀이', '경·서도민요' 등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후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의 '동아줄 꼬는 소리', '성토(가래질 소리)'와 '지경다지기'가 시연됐다.

'이무술'은 과거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였던 곳으로, 집터 다지는 소리는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짓거나 증축 할 때에 집터를 다지고, 고르며,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에 부르는 노동요다. 성남문화원은 1982년 집터 다지는 소리 경험자인 원주민 고(故) 김영환 옹 외 마을주민, 방영기(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등 전문가의 고증을 바탕으로 보존회와 함께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복원·재현했다.

『제4회 둔촌문화제』
9. 28(토),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시(詩) ·무(舞) ·악(樂)의 향연으로 열려...

성남문화원은 성남의 큰 어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 선생의 효행과 충절, 선비정신을 기리는, '제4회 둔촌문화제'를 9월 28일(토) 오후2시 성남시청 온누리홀(1층)에서 개최했다.

광주이씨 대종회(도유사 이옥재)가 후원하는 '둔촌문화제' 식전공연은, 오후 1시 20분부터 문화원 동아리인 '벨칸토 콰이어', '은빛 국악예술단', '아코디언 사랑', '금빛 춤 사랑'이 참여하고, 로비에서는 유명헌 서예가와 성남캘리그라피 협회 회원들이 '둔촌 어록 써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2시부터 본 공연에서는 방영기 명창의 사회로 둔촌 선생을 추모하는 성남시립합창단의 '큰 기침 소리', '탄천의 눈물' 공연과 , 둔촌 作 '정훈' 시창(방영기), 진혼무(정미래), 대금연주, 이주희 연극배우가 둔촌 추모시 '둔촌할아버지' 낭송, 둔촌백일장 입상작 시낭송을 둔촌선생이 영면하고 있는 하대원동의 박호근, 안광림, 김정희 시의원, 최대범 하대원동장, 김종현 하대원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한 무대에서 낭송하며, 하대원동 소재 초등 댄스팀 '일등주세요', 걸벤져스가 댄스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성남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인 국악관현악단 소리향의 '천명', 성남농악보존협회의 '판굿', 춤자이무용단의 '여명의 빛', 이향우 경기민요단의 '비나리와 장대장타령',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퍼포먼스 '천년의 북소리', 마지막 무대로 성남출신 개그맨 겸 가수 김종하가 둔촌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아싸 아리랑' 신곡으로 행운을 선사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한·중 문학인, 시로 하나 되다.
『제11회 한·중 문학인 만남』

한·중 수교 27주년 및 한국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 국제자매 결연 21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중 문학인의 만남, 열한번째 시낭송회"가 2019년 10월 12일 중한교류문화원에서 진행됐다.

김대진 한국 성남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이어지는 시낭송회를 통해 우리는 상호 우의를 다지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며 공동의 역사, 문화를 되새기고 전승해 나갔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교육행사를 전개해 상호간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 피력했다.

이날 한·중 양국 문화인들은 풍부한 감성으로 김학송의 <나는 조선민족이다>, 정호승의 <봄길>, 정인호의 <동행>, 김창영의 <심양아, 우뚝 솟은 심양아>등 16수 시를 낭송했다. 시낭송 사이사이 다양한 문예공연도 곁들여져 행사에 풍성한 볼거리를 더했다.

미래 주역들, 글짓기 기량 한껏 발휘해
『제14회 둔촌 중국 백일장』

2019년 10월 12일, 둔촌 이집 선생의 효행과 충절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 및 학습 증진에 취지를 둔 성남문화원과 심양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한 "제14회 둔촌 중국 백일장"이 심양시 조선족 제1중학교에서 진행됐다.

개막식에 앞서 지난 13년간 둔촌 중국 백일장의 순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2019년은 한·중 수교 27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은지 21주년이 되는 해다. 성남시와 심양시는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둔촌 중국 백일장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말을 널리 보급하고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진 한국 성남문화원장은 개막사에서 "둔촌 중국 백일장은 둔촌 이집선생의 효행과 충절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둔촌 이집 선생의 모범정신을 본받아 바른 인성을 갖춘 민족의 자랑스러운 인재로 거듭나길" 희망했다. 또한 의붕 심양시 교육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둔촌 중국 백일장은 심양시와 성남시 간 뜻깊은 교육합작의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심양시와 성남시가 향 후 문화교육면에서 합작과 교류를 강화하여 민족문화교육의 발전을 부단히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양지역 조선족중소학교, 요녕 민족사범 고등전문학교와 심양 한국국제학교에서 추천한 총 600여명의 학생들은 <나에게 친구라는 건>, <어른들은 몰라요>, <부재중 전화>, <여름의 향기> 등 4개의 명제를 두고 자신의 글짓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작품 심사기간 여러 학교에서 준비한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지난해 둔촌 중국 백일장에서 장원상을 수상한 학생의 작품 낭송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참여 학생 모두가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학인, 교육연구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글짓기 실력이 제고되는 것이 보인다. 특히 올해 우수한 작품들이 너무 많이 제출되어 그 속에서 등수를 가려내는 데 몹시 어려움이 컸다.", "평범한 구성이지만 진정성 있는 표현력으로 승부를 본 문장들이 더러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심사결과 소학조에서 심양시 혼남구 조선족학교 오경혜와 심양시 서탑 조선족소학교 임다혜, 초중조에서 심양시 조선족 제6중학교 박옥룡자와 심양시 조선족 제2중학교 장희함, 고중조에서 심양시 조선족 제1중학교 정승수와 심양 한국국제학교 김미리가 장원상을 수상했다.

『제22회 강정일당 상 시상식』
수상자 유혜선 서예가 선정

성남문화원은,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1986년) 된 후, 한국 문화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조선후기 여성 문사 강정일당(1772-1832)의 고귀한 인품을 기리고자 제정한, 제22회 강정일당 상 수상자로 분당구 이매동에 거주하는 유혜선(68세, 성남여류서예가협회 회장)여사를 선정하고, 10. 23(수)오후 3시 성남시청 한누리홀(3층)에서 시상했다.

이번 선정된 유 여사는, 현재 서예가로서 외유내강 성품에 유연함과 강직한 실천력으로 각종 사회 활동에서 모범이 되어 왔으며, 자녀들에게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재목으로 욕심 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훈육하고 있다.

서예 예술가로서 전통예술인 서예 보급과 한글보급을 위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성남서예가총연합회, 성남여류서예가협회, 매당묵연회 등 서예 단체의 장을 맡아 '노인 휘호대회'와 '매당묵연회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성남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경기도민상(예술), 성남시장 표창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성남시 관내 주민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서예가를 다수 배출한 공적을 인정받아 강정일당 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22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제14회 남한산성문화권 순국선열 추모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우리 민족의 희망'

남한산성문화권협의회(성남, 광주, 하남문화원) 주최, 경기동부보훈지청 후원으로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제14회 남한산성문화권 순국선열 추모제가 신동헌 광주시장(경기),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이창희 광주문화원장, 유병기 하남문화원장 등 150여명의 보훈가족, 문화원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하여 11월 13일 광주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식전공연은 한범택 무용가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2부 추모식에는 경과보고와 제문봉독, 추모사, 김영희 시인의 '추모시', 헌화 및 분향이 진행됐고 광주오페라단의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으로 추모제를 마쳤다.

제24회 학술회의
『성남지역 독립운동과 기념사업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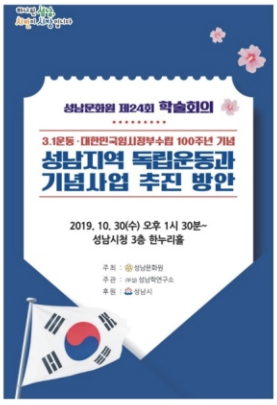
성남학 연구의 총 본산인 성남문화원은 제24회 학술회의 '성남지역 독립운동과 기념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10월 30일(수)에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갖게 된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뜻깊은 해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면서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하여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기념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학술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수원대학교 사학과 박환 교수의 기조발표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기념사업 추진방안'이 발표되고, 숭실대 성주현 교수가 제1주제 '제암 한순회와 천도교의 민족운동'을, 동국대 조성운 교수가 제2주제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을 동서울대 서승갑 교수가 제3주제 '일제의 강제수탈과 독립운동의 전개'를 발표한 후 종합토론에는 중앙대학교 김인식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서태정 전문원, 성남학연구소 윤종준 상임위원이 참여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펼쳤다.

성남지역은 역사적으로 의병항전과 독립만세운동, 신간회 운동 등으로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율동공원에는 성남3·1만세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낙생대공원에는 성남항일의병기념탑이 건립되어 있다.

김대진 원장은 "성남문화원이 3·1운동 기념식을 해마다 개최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되찾은 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고 평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화연구』 26호 발간

성남문화원(부설), 성남학 연구소(소장 조남두)의 핵심 사업인 『성남문화연구』 26호가 편찬되었다. 성남학 연구소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전승뿐 아니라 현대문화와도 잘 융합하여 새로운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 제26호는 서철수 연구위원의 '성남시 토지등록제도의 고찰', 홍대한 연구위원의 '매듭장연구', 조남두 소장의 '성남의 교육 역사와 현황', 민덕식 연구위원의 '낙생역과 판교원', 최만순 연구위원의 '성남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윤종준 연구위원의 '천림산 봉수 원형 복원 과정과 활용방안'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제24기 문화학교 수강생 전시·발표회』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문화학교(교장 방영기)는 2019년도 제2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졸업 작품 전시·발표회를 12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금년 제24기는 전통문화 9개 강좌 16개 반에 170여명이 입학해 1년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성남시립국악단의 식전 축하공연과 1부 수료식에서는 수료증과, 표창장 수여, 2부 졸업작품 발표회는 가야금(꽃이 피었네), 경서도민요(태평가), 한국 무용(고풍, 박금술 기본 굿거리), 풍물(웃다리 사물놀이), 오리뜰 농악(삼도 사물놀이), 판소리(사철가), 영어 문화(징글벨) 발표와, 한문서예, 문인화, 한글서예 67점의 작품을 일주일간 전시했다.

김대진 원장은 "배움은 나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성남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기관으로써 동참한 수강생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성남문화학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1996년 개설되어 1999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된 이후 지난 23년간 4,462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2019 성남문화의집 수강생 전시·발표회』

성남문화원 위탁 성남문화의집은 2019년도 성남문화의집 수강생 작품 전시·발표회를 1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현재 성남문화의집은 경기민요를 비롯하여 23개 강좌 28개 반이 편성되어 운영 중이다.

금년 성남문화의집 수강생 전시·발표회에서는 수강생들이 그동안 수업을 들으며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동양화(초/중급), 사진교실, 서양화, 지승공예, 캘리그라피, 한문서예(오전/오후), 한지공예 9개 반의 작품전시와 경기민요(금강산 타령), 클래식기타(초우, 만남), 난타(북의 향연), 남도민요(춘향가 중 '니그른 내력'), 노래교실(언제벌써, 보약 같은 친구), 성악교실(아름다운 내사랑, 어린시절), 우리춤체조(사랑무), 풍물(웃다리 사물놀이), 한국무용(소고춤) 9개 반의 발표 공연이 이루어졌다.

3층 전시실 앞에서는 식탁위의 동의보감(한방차 시음), 캘리그라피(손거울) 2개 반의 체험행사도 이루어졌다.

성남문화원이 위탁 운영하는 성남문화의집에서는 2020년 1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2020년도 제1기 수강생 559명을 12월 16일부터 모집한다.

성남문화원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최우수상 수상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민속놀이인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가 3개월간의 노력 끝에, 9월 20일(금)에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방영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장은 성남의 전통민속놀이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전승·보존시키기 위해 35년간 노력해왔고, 지난 2017년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 지정까지 성남문화원과 최선을 다해왔다.

〈9988 톡톡쇼 경연대회〉 성남문화원 풍물동아리 『타악연희단 소리울』 대상 수상

경기도 주최,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제4회 2019년 9988 톡톡쇼 경연대회' 본선대회에서 성남문화원 풍물동아리 '타악연희단 소리울'(대표 이영표)이 대상을 수상했다.

성남시에서 활발한 전통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타악연희단 소리울은 두 번의 예선을 거치며 긴 시간 더위를 이겨내고 본선에 올랐으며, 올 상반기 동두천시에서 열린 제3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2019 경기도 어르신 즐김터 사업〉
『종이로 엮는 황혼·지승공예』 성과전시회

성남문화원이 주관하는 경기복지재단 2019 경기도 어르신 즐김터 지원사업 '종이로 엮는 황혼. 지승공예' 성과 전시회가 11월 19일(화) 오후2시, 성남문화원 1층 로비에서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홍연화 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시는 21주간 문화원에서 수행한 지승공예 프로그램의 김준기 외 10인의 결과물로, 종이를 엮어 만드는 지승공예로 표현한 프로그램이며, 지역 사회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과 문화향유의 기회 마련을 목표로 어르신 즐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9 경기도 어르신 즐김터 사업〉
『종이로 엮는 황혼·종이인형』 성과발표회

성남문화원이 주관하는 경기복지재단 2019 경기도 어르신 즐김터 지원사업 '종이로 엮는 황혼. 종이인형' 성과 발표회가 9월 23일(월) 오후2시, 성남문화원 1층 문화관람실에서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이정국 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종이로 엮는 황혼-종이인형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과 문화 향유의 기회 마련을 목표로 하여 올해 5월 13일 개강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도록 19주 동안 '마음열기', '종이인형만들기', '나의 이야기' 등으로 기획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김수복 외 4인의 인형극 발표회를 진행 했다.

〈2019 생활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문화공유 성남! 예술파동』

성남문화원이 주관하고 경기문화재단 주최 및 경기도가 후원하는 2019 생활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문화공유 성남! 예술파동'공연이 11월 6일 12시부터 야탑역광장에서, 전시는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성남문화원 3층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6일 공연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뜻모아 경기민요단의 '아리랑 메들리', 아코디언 사랑의 '가을', '찔레꽃', '홍도야 울지 마라' 연주, 금빛 춤 사랑의 '부채춤',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경기가락 웃다리 사물놀이', 춤 벗의 '부채춤', 벨칸토 콰이어의 '어느 가을날의 만남', '어린 시절' 합창, 마지막으로 해당화 우리소리의 '박연폭포', '한강수', '태평가'가 펼쳐졌다.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되는 캘리그라피 전시는 함미영, 한주현, 손영경, 진영임, 황금희, 천기현이 정승호 시인의 '봄길', 나태주 시인의 '풀 꽃', 윤동주 시인의 '한송이 국화 꽃', 이선희 노래 '별처럼' 등 다채로운 글귀를 캘리그라피 예술로 표현했다.

〈2019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사업〉
『세묶음』 공연

성남문화원이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및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세묶음』공연이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은행동 산성공원 놀이마당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프로그램 <신명나는 문화나눔>은 '금빛 춤 사랑회', '춤벗', '해당화 우리소리'가 멋드러진 우리춤과 민요를 공연하였고, 두 번째 프로그램 <함께하는 문화산책>은 '뜻모아 경기민요', '아코디언 사랑', '벨칸토콰이어',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사물놀이와 성악 그리고 민요를, 세 번째 프로그램 <문화나눔 성남>은 모든 팀들이 출연하여 다채로운 움직임과 소리의 향연을 펼쳤다.

원데이클래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2019 성남문화의집 원데이클래스』 진행

총 5회에 걸친 2019 원데이클래스는 1~4회차는 취미생활을 하고자 하는 저녁시간에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5회차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진행되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7월~10월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날' 저녁시간에 진행하였으며, 회차별 새로운 클래스를 진행하기 위해 성남에서 활동 중인 외부 강사를 초빙하였다.

1회차 7월 25일(목)에 스튜디오엠엠 김지은 대표의 '라탄공예-컵홀더&티코스터', 2회차 8월 29일(목)에 라이크쓰리앤 안연선 대표의 '비누공예-원석비누', 3회차 9월 25일(수)에 카페후 정다운 대표의 '프랑스자수-파우치', 4회차 10월 30일(수)에 스튜디오엠엠 김지은 대표의 '마크라메-플랜트 행잉', 5회차 12월 21일()에 그리다마치 박윤영 대표의 '캔들공예-젤캔들, 비즈시트캔들'을 진행하였다.

원데이클래스는 2016년도부터 진행되었으며, 성남문화원과 성남문화의집에 대해 아직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 문화원과 문화의집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리고, 바쁜 직장인들과 워킹맘에게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남문화원과 성남문화의집은 옛것을 고집하는 곳이 아닌, 전통과 현대를 고루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숨겨져 있던 솜씨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남문화원, 개원 41주년 기념 창작 판소리『삼학사』공연

성남문화원은 개원 41주년 기념으로, 창작 판소리 '삼학사' 공연을 판소리보존회 성남시지부(지부장 문효심)와 함께 7월 12일(금) 오후2시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연된 창작 판소리 '삼학사'는, 판소리보존회 성남시지부장 연당 문효심이 작사·작곡했고, 판소리보존회 소속 회원들이 늦은 중머리에 '삼학사 피 흘린 곳', '조선에 세 신하', 삼학사 입제창에 '곤룡포 찢긴 치욕', '남한산성 청청노송' 등을 발표했다.

유혜선 서예가, 강정일당 상 시상금 전액 기부

'제22회 강정일당 상'을 받은 유혜선(68) 성남여류서예가협회장이,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써 달라며 시상금 30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

유혜선 회장은 성남서예가총연합회, 성남여류서예가협회, 매당묵연회 등 서예 단체의 장을 맡아 '노인 휘호대회'와 '매당묵연회전' 개최와 성남시 향토문화재 선인들의 얼을 기리는 서예전시 등을 진행해 경기도민상(예술), 성남시장 표창 등을 수상 하며, 지난 10월 23일 성남문화원이 선정·시상하는 강정일당 상을 받았다.

『성남시 장애인 합동결혼식』 -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주례 -

'2019년 제7회 성남시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11월 19일(화) 메종드베르에서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 주최, 성남시, 성남시의회 등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결혼식은 5쌍의 신랑 신부들이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의 주례와, 수정여성합창단의 축가 '아름다운 세상' 등 가족, 친지, 내빈 등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개최됐고, 제주도로 2박 3일의 신혼여행을 떠났다.

『해설과 함께하는 2019 우리소리를 찾아서』 - 아천 방영기 명창과 100여명 출연 -

(사)선소리산타령보존회 성남시지부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원이 후원한 '해설과 함께하는 2019 우리소리를 찾아서' 공연이, 12월 3일(화) 오후4시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고 장소팔 선생의 아들인 민속만담 장광팔 선생과 독고랑의 사회로 진행됐다.

성남이 낳은 천상의 소리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인 방영기 명창과 박상옥 서울시 무형문화재 휘모리 잡가 예능보유자, 춤자이무용단, 이향우 경기민요단과 성남국악협회 심선영, 김복심, 정점순, 장수희, 이대호, 김희복, 홍주연, 오현서, 박연주, 순미자, 서정이 선생과 이현정, 정연경 등 서도산타령, 신세대 소리꾼 나나니민요단의 방글, 박수경, 판소리 김예슬, 소리울 풍물패, 각설이 길손,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팀 등 100여명의 출연진이 2시간 동안 우리소리의 진수를 선보였다.

◯ 홍연화 <성남시 공예 명장 1호> 『지방문화원 어워드,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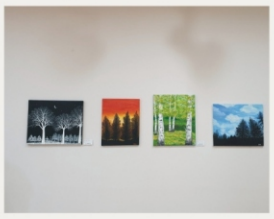
성남시 공예 명장 제1호, 경기천년 장인, 성남문화원 감사 홍연화 명장이 12월 10일 남양주시 서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최, 제21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에서 성남문화원 추천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홍연화 명장은, 올해에는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 한국공예전'에서 한국 공예를 대표하는 23명의 작가와 함께 지승공예 작품을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밀라노 슈퍼스튜디오에서 전시했고, 2019 한국 공예주간 북촌 성재건축자료관 전시회 출품 등 우리 성남시의 공예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공예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 성남문화의집 서양화반 『제15회 꿈을 향하여』 전시회 열려..

한국미술계에서 왕성한 미술활동을 하며, 후진양성에 애쓰는 성남문화의집 서양화반 이정애 선생은 수강생들을 지도하여 매년 개최하는 '제15회 꿈을 향하여' 전시회를 성남문화원 3층 전시실에서 12월16일(월) ~ 19일(목)까지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정애 선생의 '그날'을 비롯하여, 기희정 회원의 'space' 작품 등이 전시됐다.



◯ 『3·1운동 100주년 인증서』 등록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념사업 인증 절차에 성남문화원의 6개 사업이 인증서를 받게 되었다. 이 사업들은 인증서와 100주년 기념사업백서에 국민참여 기념사업으로 등재된다.

- 3·1운동 기념식
- 3·1절 100주년 태극 길놀이
- 성남3·1만세운동기념탑 추념제
- 3·1만세운동 야외공연 및 부대행사
- 경기문화재단 지원, '경기지역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 제24회, 학술회의 '성남지역 독립운동과 기념사업 추진방안

성남문화원, 『2019 문화가족 송년회』 '심홍임 이사, 김연정 대리, 이상균 실장' 성남시장 표창 등

지난 41년 동안 성남 문화융성 시대의 중심으로, 전통문화 창달과 전승, 지역문화 창달과 국내외 교류, 문화예술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문화원상' 3년 연속 수상, '경기도 문화예술 기관단체 최우수상 수상' 등 전국 231개 문화원 중 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성남문화원, 2019년 12월16일 만강홍에서 문화가족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대진 원장의 인사말과 이해인 시인의 '또 한 해를 보내며' 시를 허지연 총무팀장이 낭독, 김희복, 홍주연 성남문화의 집 경기민요 강사의 '양산도, 뱃노래 외' 축가와 함께 친교의 밤 행사로 이어졌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한 해 동안 성남문화원 발전에 헌신한 심홍임 이사, 김연정 대리, 이상균 관리실장에게 성남시장 표창이, 조남두 소장, 최명숙 연구위원에게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표창이 그리고 이성섭 특별회원과 심기환 사원에게 문화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신임이사로 이형복 성남농협 조합장이 위촉됐다.

성남의 역사, 문화, 지명유래, 인문학을 집대성한 강의 『2019 성남학아카데미』 수료식

성남문화원 특색사업으로 진행했던 '2019 성남학아카데미' 수료식이 12월 18일(수) 열렸다. '성남학아카데미'는, 우리 고장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전통, 사회, 인문, 교양 등을 주제로 하는 특색강좌로, 2010년 '향토문화 아카데미'로 시작하여, 2011년부터 '성남학아카데미'로 이어져 오면서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다.

2019년도에는 3월 20일 개강하여 7월 10일까지 상반기 16회 강좌와 1회의 현장답사로 충청남도 예산군을 다녀왔으며, 하반기 강좌는 8월 21일에 개강하여 12월 18일까지 하반기 16회 강좌와 1회의 현장답사로 충청북도 보은군을 다녀왔다.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 성남문화원『천림산 봉수지 복원』성과 - 김대진 문화원장, 성남시장 공로패 수상 -

성남시는 9월 24일 오후 수정구 금토동 산35번지의 천림산 봉수지에서 '천림산 봉수지 복원 정비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천림산 봉수지 복원에 많은 연구와 도움을 준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에게 은수미 시장이 공로패를 수여했다.

천림산 봉수는 전국 5개 노선의 봉수 시설 중 하나로 용인의 석성산 봉수에서 받은 신호를 서울 남산 목멱산 봉수로 전했다. 세종실록지리지 등 각종 사료에 기록은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방치됐다가 1996년 윤치장 의병장 증손자인 윤효상씨의 제보로 터를 확인했고, 발굴 조사 과정을 거쳐 2002년 9월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다.

지난해 6월부터 16억 5천만원을 투입해 조선 중기 봉수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 8명의 봉수 관련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투입됐고, 서울 남산 쪽을 향하고 있는 연조 5개 중 비교적 원형을 유지한 1개의 연조는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 처리했다. 또 위쪽 구조가 거의 유실된 4개의 연조는 학술 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복원했다. 위치 고증에서 복원까지 25년간 성남문화원이 학술연구와 타지역 봉수현황조사를 진행한 성과이다.

하반기
향토유적지 순례 및
아카데미 답사

향토유적지순례 4차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일대)

9월26일 성남시민 43명과 함께 강원도 춘천, 화천 일대로 제4차 향토유적지순례를 다녀왔다. 바쁜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삶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제이드가든'을 방문하였다. 또한 북한 임남댐의 수공을 방어하는 댐으로 '평화의 댐',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세계평화의 종 공원', 가곡 비목의 탄생지인 '비목공원'을 답사하였다. 특히 화천 일대의 답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향토유적지순례 5차 (석모도, 강화도 일대)

10월24일 성남시민 44명과 함께 강화도 일대로 제5차 향토유적지순례를 다녀왔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영지 중 하나인 '보문사'를 방문하였고, 강화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화역사박물관'을 답사하였다. 또한 '고인돌' 유적을 둘러봤으며 돌아오는 길에 사적 제226호 '덕진진'을 방문하여 병인양요, 신미양요로 인한 전쟁의 상처를 둘러보았다.

향토유적지순례 6차 (강원도 동해, 삼척시 일대)

11월26일 성남시민 44명과 함께 동해, 삼척 일대로 제6차 향토유적지순례를 다녀왔다. 바다 풍경이 멋지고 전설이 살아 숨 쉬는 '해신당 공원', 남북휴전으로 군사지역이었던 곳을 일반인에게 개방한 '초곡용굴촛대바위길'을 답사하였으며, 대자연의 신비함을 간직한 국내유일 도심 속 동굴 '천곡황금박쥐동굴'을 답사했다.

성남학아카데미 2차 현장답사 (충청북도 보은군 일대)

성남학아카데미 하반기 강좌는 8월 21일에 개강하여 12월 18일까지 하반기 16회 강좌와 1회의 현장답사로 수강생 43명과 함께 10월8일 충청북도 보은군을 다녀왔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속리산 '법주사'를 시작으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는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신라의 난공불락의 요새 '보은사 삼년산성'을 답사했다.

일 정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월	판교쌍용거줄다리기 재연	일 시 : 2. 8 (토) 10:00 ~ 장 소 : 판교동 주민센터 앞 광장 내 용 : 전통 민속놀이 시연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일 시 : 2. 8 (토) 13:00 ~ 장 소 : 성남시청 앞 광장 내 용 : 연날리기 및 전통 민속놀이 체험, 축하공연
3월	제101주년 성남3·1만세운동 기념식	일 시 : 3. 1 (일) 10:00 ~ 장 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 대강당, 광장 내 용 : 식전행사, 태극기 몹, 3·1절 기념식, 공연
4월 ~11월	향토유적지순례	기 간 : 4월 ~ 11월 장 소 : 주요 문화유적지 내 용 : 관내 및 전국 문화유적지 답사 (6차)
6월	성남시 향토 민속놀이 공연	기 간 : 6. 25 (목), 9. 28 (월) (총 2회) 장 소 : 야탑역 광장 등 사업내용 : 오리뜰 농악,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7월	제29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일 시 : 7. 11 (토) 10:30~ 장 소 : 성남시청 분수대 광장 내 용 : 시상식 10월 21일 수요일
9월	제20회 송산백일장	일 시 : 9. 12 (토) 10:30~ 장 소 : 성남시청 분수대 광장 내 용 : 시상식 10월 28일 수요일
	제13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일 시 : 9월 중 장 소 : 고양시 내 용 : 성남 오리뜰농악 참가(예정)
	제5회 둔촌문화제	일 시 : 9. 19 (토) 15:00~ 장 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 대강당 내 용 : 제5회 둔촌상 시상, 국악, 무용, 음악 공연
10월	단기4353년 개천절 기념식,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축제	일 시 : 10. 3 (토) 10:00~ 장 소 : 성남시청 / 산성공원 놀이마당 내 용 : 개천절 기념식 및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축제 행사 개최
	제15회 둔촌중국 백일장	일 시 : 10. 17 (토) 08:50~ 장 소 : 중국 심양시(자매도시) 사업내용 :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선생의 효행과 충절심을 기리는 글짓기
	제23회 강정일당 상 시상	일 시 : 10. 21 (수) 15:00~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내 용 :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강정일당을 추앙하며 성남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을 선정하여 시상 ※ '성남사랑 글짓기' 시상식 병행
	제25회 학술회의	일 시 : 10. 28 (수) 13:00~ 장 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 내 용 : 미정 ※ '송산 백일장' 시상식 병행
11월	제14회 남한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일 정 : 11. 17 (화) 예정 장 소 : 미정 내 용 : 남한산성문화권협의회 주최, 경기동부보훈지청 후원
12월	2020 성남문화가족 송년회	일 정 : 2020년 12월 중

※ 행사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